

[붙임 3]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 명		학 번	
단과대학		학과(전공)	
도전학기 과제명	(국문) 취업왕국 - 보고 Job다 (영문) Occupation World - Seeking and get the job		
지도교수 의견	도전학기 수행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수행하였고 취업과 관련한 개별사례들은 잘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보고서에서 전공인 영어영문학과 도전학기 과제를 연결 지으려고 노력한 모습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 목 차 〉

1. 도전 과제의 목표
2. 도전 과제 내용
3. 도전 과제의 성과
4. 자기평가
5. 최종 결과물

1. 도전 과제의 목표

기존에 없는 체험: 나만의 체험, 직업군의 다양성과 해외에 취업 할 국가에 대한 문화권 체험

1.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현실적인 인터뷰
 - 직업군에 대한 국내에서 알기 어려운 정보를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어 보기
 - 홍보영상에 나오는 장점뿐만 아니라 실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보기
 - 실무자가 바라보는 나의 직업과 직장
 - 영어영문학과 학생이 취업할 때 가지는 이점에 관해서 얘기 나누어보기
2.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 운영 방식과 체계는?
 - 문화권별로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 실제로 운영 방식의 위기 대처법이나 어려움, 장점을 살펴보기
3. 그 생활환경(문화)의 비교
 - 사람의 삶은 본질적으로 비슷하더라도 형식의 차이는 존재하므로, 실제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

●도전과제의 효과

개인(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경험+새로운 시각으로 해외 취업을 바라봄 • 다른 환경에서의 경험

해외취업 준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적인 생각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음 •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남 • 잘 몰랐던 해외직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 실제 해외취업 현황-(표1 참조)



<표1: 연도별 해외 취업자 수>

기대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정부 소개로 日 취업했는데... 가보니 블랙기업", "해외서 일하는 청년은 몇 명?... 정부'알 수 없음'〉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50462940604>

: 정부 주도 해외 취업 현황 문제점 기사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8462

: 정부 주도 해외 취업 현황 문제점 기사(해명_고용노동부)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고용노동부 산하 job월드(www.worldjob.or.kr)

국제기구 나도 간다_이정은 저 꿈결 펴냄

미국서부_중앙복스 펴냄 외(外) 다수 참조

(*도전학기 계획서 중 일부 발췌)

2. 도전 과제 내용

(과제 내용 일정표)

1차	1차 중간	2차	2차 중간	3차	3차 중간	결과물
기획	주차&면담	도전학기	주차&면담	도전학기(한국)	주차&면담	사람책/영상
	정산				정산	제출/개인책자
~18.12.03	~18.12.21	~19.01.03	18.12.27	19.01.10	19.01.11	19.01.12 ~ 15

진행 상황은 처음 기획 단계부터 과제물 단계까지 일정

1) 다양한 직업군 인터뷰 및 근무지 탐방

: 하단에 진행된 인터뷰 질의·응답지 첨부

: 예정 되었던 인터뷰 목록

직장	직군	부서	담당자명
SF City Hall	공무	Human Resource Department	Carol
Youtube	사기업	Backend Server Department	전요한
UCSF Medical Center	의료	MG mid-ICU ¹⁾	최민혜
Airbnb	스타트업	Community Organization Department	Collin
Kensington Park Hotel	서비스	Hotel Management Department	Joshua
Habitat	INGO ²⁾	前) 해외협력부, 現)기업개발부	김지선

2) 샌프란시스코 문화체험 및 비교

-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운영하는 역사투어

: Union Square - China Town - Financial District

- Meet up³⁾ Program

: 20-Something Friends & Fun in SF 소그룹 참여

- 문화관련 장소 탐방

: San Francisco Science Academy

: Fishermans' Wharf

: Shakespeare Garden

등등 외 다수

1) MG(Medicus Gratus)의 약자로 내과를 총칭하며, ICU(Intensive Care Unit)의 약자로 중환자실을 말한다.

2) INGO는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이며, 정의는 하단 인터뷰 질문지 참조

3)특히 미국 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관심사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3. 도전 과제의 성과

● 도전학기 목표: 실제 해외 직장 및 취업 환경과 문화 특성 이해하기

1) (해외) 직장 및 취업부분

- 근무지 방문 및 탐방
-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현실적인 인터뷰

도구: 근무자 인터뷰 진행 및 탐방 - 질문지 문서 하단 붙임 참조

직장	직군	부서	담당자명
SF City Hall	공무	Human Resource Department	Carol
Youtube	사기업	Backend Server Department	전요한
UCSF Medical Center	의료	MG mid-ICU ⁴⁾	최민혜
Airbnb	스타트업	Community Organization Department	Collin
Kensington Park Hotel	서비스	Hotel Management Department	Joshua
Habitat	INGO ⁵⁾	前) 해외협력부, 現)기업개발부	김지선

예정된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찾기 어려운 기업정보와 직책·직무 관련정보 등을 얻게 되었으며, 고정관념이나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바로 알게 되었음
실제 근무지 방문을 통해서 각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음.

2) (해외) 그 생활환경(문화)의 비교

- 문화탐방을 통해 실제 문화권 체험해보기

체험	방문
SF Free Tour	: San Francisco Science Academy
Meet up Program	: Fishermans' Wharf
	: Shakespeare Garden
	등등 외 다수 방문

: 문화탐방 프로그램과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생활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직접 방문을 통해 문화권에 대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탐방함으로써 인해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견문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었음. 일부 2학기 수강한 실용영어(2)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연장해서 강의실에서 체험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현장체험을 함

3) 사람책 - 사람책프로그램 진행 (*하단 붙임 파일 참조)

: 사람책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인해서 단순히 기획자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고 느낀 정보를 공유하여 참여자는 정보를 얻고, 진행자 역시도 참여자 생각을 듣고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음.

4) MG(Medicus Gratus)의 약자로 내과를 총칭하며, ICU(Intensive Care Unit)의 약자로 중환자실을 말한다.

5) INGO는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이며, 정의는 하단 인터뷰 질문지 참조

working place

1. Are you satisfied with your work environment?

1-1) why?

2. How are mistakes handled?

3. What do you think about working with a foreigner/ foreigners?
(personal experience)

10. Before and after: Did you have any stereotyped view of current
workplace and job?

11. How difficult is your job?

- 업무의 강도(개인마다 편차가 있으니 주의)/했었던 업무

12. Mistake experiences

- 개인의 실수 처리방법/ 회사의 실수 처리 방법
- 한국과 비교하기.

13. How do you find working with your boss or colleagues?

(회사에서 동료들과 어떻게 일하십니까?)

14. What is the requirement for English proficiency?

15. Related english literature · Language

[직장/직업]

1. (한국처럼: 인터뷰 때 설명해줌) 직무교육은 하는가요?

2. 야근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 최소/최대의 희망사항

3.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개인적임을 밝힘)

-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혹은 선망되는 직종

-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일반적인 경우로 물어볼 것)

[전공분야]

1. 전공이 영어영문인데 본인의 직업에서 영어영문이 적용될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 영어영문학과 관련 자료 제시(전공과목 세부내용 알려주기)

[추가질문]

-상황에 따라 항목에 따라 추가

[기본질문]

Hello
 I'm Judy, a university stud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better understand work environment in the USA.
 Strictly confidential and will not be sold, reused, rented, loaned or otherwise
 disclosed.
 Thank you!

*: optional inquiry

1. 이름:

2. 나이

- ① 10s ② 20s ③ 30s ● 40s ⑤ 50s ⑥ 60s ⑦ 70s ⑧ +70s

3. 학력

- ① Under Middle School ② High School ③ College ● University ⑤ +graduate school ()

3-1) In case you chose ④ or ⑤ what is/was your major?

[Personal]

1. 현재 직업/직책이 무엇입니까?

: 공공업무부원, 각 부서에 메일이나 우편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2. 왜 이 직업을 택하게 되었나요?

: 샌프란시스코를 좋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다가 하게 되었다.
 또한 복지 혜택이 좋기도 했고.

3.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한 일들

: 들어가는 방법

1. 샌프란시스코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친다.
2. 성적발표 후 상위권에 있으면 인터뷰 자격이 주어진다.
3. 면접(인터뷰)을 본다.
4. 최종 결과를 받고 합격이면 출근한다.

[working place]

1. 근무 환경은 만족 하시나요?

예, 아주 만족합니다.

1-1) why?

좋은 복지와 무난한 근무 강도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던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인터뷰 질문지

(SF City Hall)

[기본질문]

Hello
 I'm Judy, a university stud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better understand work environment in the USA.
 Strictly confidential and will not be sold, reused, rented, loaned or otherwise disclosed.
 Thank you!

*: optional inquiry

1. 이름:

2. 나이

- ① 10s ② 20s ③ 30s ● 40s ⑤ 50s ⑥ 60s ⑦ 70s ⑧ +70s

3. 학력

- ① Under Middle School ② High School ③ College ● University ⑤ +graduate school ()

3-1) In case you chose ④ or ⑤ what is/was your major?

: 영어·영문학과

[Personal]

1. 현재 직업/직책이 무엇인가요?

: 현재 인력개발부에서 Human Resources Analyst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고용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고용정책이나 샌프란시스코 정책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공채시험을 주관하고 채용도 하는 등등의 일을 합니다.

2. 이 직업을 택하게 된 이유?

: 택한 이유는 좋은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좋았다.

3. 회사에 들어오는 경로, 방식

: 들어가는 방법(정규직)

1. 샌프란시스코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친다.
2. 성적발표 후 상위권에 있으면 인터뷰 자격이 주어진다.
3. 면접(인터뷰)을 본다.
4. 최종 결과를 받고 합격이면 출근한다.

들어가는 방법(특채)

시험 없이 면접을 보고 결과에 따라 출근하면 된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고용에 대해서 제한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없음.

[working place]

1. 근무 환경은 만족 하시나요?

예, 아주 만족합니다.

1-1) why?

일단 근무지 자체가 너무 외·내관 모두 아름답다. 그리고 동료들이나 상사도 좋은 사람들이라 같이 일하는 것이 즐겁다.

2. 실수한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실수는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실수의 규모는 각 부서에서 판단하여 처리한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해고 될 수도 있지만 정규직이 실수한 경우(아주 큰 사고일 경우를 제외함)에는 사고경위서를 쓰면 된다. 그래도 우리부서에서는 실수를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보기 보다는 사람을 먼저 고려하는 편이다.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다!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다른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 낸다. 샌프란시스코 구성원 자체가 이미 Melting Pot(다문화지역)라서 그 부분이 새롭지는 않다. 인종차별은 어딜 가나 있고, 크게 문제 될 만큼은 없었다.

5. 업무 강도는 어떠신가요?

나쁘지 않다. 어떤 일이든 좋은 시기 힘든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종종 문제가 생겨서 일이 꼬이긴 해도 평상시에는 무난하다.

6. 직장 내 사람관계는 어떤가요?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는 총괄 팀장이 우리에게 매우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대해준다. 예를 들면 '상담테이블'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문제나 고민이 있으면 얘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8. 영어(언어)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잘하면 잘 할수록 좋다. 하지만 우리는 통역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영어(언어)교육도 해주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에 대해서 겁먹지 않았으면 한다.

[전공관련]

1. 영어영문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엄청 도움이 된다.

특히 무언가에 대해서 독해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령 정책이 변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당사자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을 통해서 사람의 특성을 접하는데, 이는 고용하거나 인력배치 할 때 많은 도움을 준다.

[기본 인적사항]

1. 이름:
2. 나이(대략적인 범위)
 ① 10대 ② 20대 ●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⑧ +70대
3. 최종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교 ④ 대학교 ● 대학원(석사/박사)
 +전공 (컴퓨터공학과)

[개인]

1. 어릴 때 꿈
 :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도 다녔음
2. 크면서(중·고등)학교 때 꿈
 : 역시 정확하게 무엇이다 하지 않았지만 컴퓨터 관련 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다.
 또한 컴퓨터 학원도 계속 다녔고 관련 자격증도 났었다.

3. 직업: Youtube Tech Engineer: Backend Server Department

3-1) 직업을 택하게 된 이유:

처음부터 '유튜브를 오겠다.' 라고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컴퓨터를 많이 좋아하다보니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하게 되었고, 박사과정까지 하게 되었으며, 추후 박사논문을 발표하려 다니다가 추천을 받아 지원을 하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원래 구글로 지원을 했는데 자리가 Youtube로 나서 이쪽으로 오게되었다.

4.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한 일들

Youtube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언가를 딱히 한건 아니다.

하지만 도움 되었던 것이 있다면, 어릴 때 컴퓨터를 가지고 놀았던 것들이 지식의 밑바탕이 되고 논문을 쓰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 향상 및 근거가 되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영어회화를 잠깐 배웠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5. 회사에 들어올 때 에피소드, 경로, 방식

한국과 같은 점은 서류전형이 있고 다음 면접을 본 다음 최종 선발이 되는 방식이다.

혹, 내부직원의 추천서가 있다면 서류전형 없이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면접은 전화로 진행이 된다.

본인도 내부추천으로 들어왔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답은 Yes이다.

회사의 직급은 한국과 달리 직급이 level로 구분된다. 직급은 level1~13까지 있으며 일반인이 지원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최대의 레벨은 level5까지이며, 석사일 경우 level3에서부터 박사일 경우 level4부터 시작이 가능하다. 승진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의 실적평가와 매니저 및 팀원 평가를 총합하여 승급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승진을 희망하는 level에 일을 이미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면 승진이 된다. 만약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려면 H1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뽑기로 진행이 된다. 뽑히지 못해

서 만약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상황이 여러모로 힘들다.

7. 외국에서 생활은 어떤지?

단점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지 않아서 확답은 할 수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샌프란시스코는 물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다. 또 한국보다 치안이 좋지 않아 불안하기도 하다 월급 받으면 세금도 많이 공제해서 많이 받아도 제하고 나면 한국에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친구를 좋아하는 성격인데 외국어가 어렵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다.

장점은 날씨가 좋다는 점이다.

구글의 장점이겠지만, 주어진 일만 하면 어디서든 일해도 상관없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처럼 제한되는 회사도 많지만 대부분은 회식이나 사람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편이다.

8. 회사에 들어오기 전후로 회사에 대한 이미지

- 엔지니어에게 최상의 조건을 가진 회사이다.

9. 들어와서의 업무는 어떠한지?

일이 힘들다 아니다 보다는 결국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분기(3개월)로 주어지는데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평가(6개월 마다 1번씩)할 때 그 직급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당한다.

할 수 있는 업무 능력에 직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지금 하는 일은 하다보면 성과가 나고 해결해나가는 재미가 있다. (웃음)

10. 실수했던 경우

개인적으로 실수를 했다는 것 보다는, 실수를 하게 되면 메일로 내부 공지가 날아온다.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보다는 실수한 담당자가 (혹은 큰 실수의 경우 상위 지급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전 직원이 같이 해결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수를 했다고 해서 눈총을 받거나 해고를 하지는 않는다. 이번에 Youtube에 대형 6버그가 생겼을 때는 분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잘 해결하면 승진 신청할 때, 문제해결수행능력에 가산을 받을 수 있다.

6) 옛날 컴퓨터에 오류가 났을 때 원인이 별래였다고 해서 생긴 단어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를 말한다.

[직장/직업]

1. (한국처럼: 인터뷰 때 설명해줌) 직무교육은 하는가요?

직무교육의 개념이 한국과 다른 것 같은데, 한국에서처럼 필수적으로, 분기별로 등등 들어야 하는 것은 없다. 다만 입사 후 Google에서 한국에 신입사원 OT같은 것을 하고 추후 Youtube로 돌아와서 Youtube OT를 4시간씩 2일정도 하면 끝이다. 그 외에 새로운 기술 등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Open Class에 본인이 신청해서 들으면 된다. 어디까지나 본인 선택.

2. 야근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여기는 야근을 하면 야근을 하면서 까지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할당된 프로젝트만 하면 되기에 언제, 어디서 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연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점? 연차를 쓸 때 당일 아침까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해도 된다. 누구의 허락 필요 없음! 그리고 팀 내에 20살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보면 정말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보통 Top to Bottom(상위 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일을 주는 것)형식으로 회사가 돌아가지만, 여기는 Bottom to Top이 돼서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 할 수 있다.

그리고 식당이 무료이다. 또 Donation제도라고 Google에서 지정된 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 액수만큼 회사에서 다시 기부를 하는데, 1회 최대 100\$까지이며, 연간 600~700\$까지 가능하다

근무환경에 대해서 불만은 없다. 다만 구지 한 가지 말하자면 강아지는 데려올 수 있는데, 고양이기는 안 돼서 아쉽다.(웃음)

3.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개인적임을 밝힘)

대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내부에 있다 보니 버그가 눈에 더 많이 띄고, Youtube가 수정해 나가야 할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 또 고용안정이라는 직장이 없다보니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level에서 Quarter양이 결코 쉽거나 적지 않다. 가끔 백조(우아하게 떠다니지만 물속에서 엄청나게 헤엄친다는 점)같다. 고용안정이 제일 아쉽다.

[전공분야]

1. 전공이 영어영문인데 본인의 직업에서 영어영문이 적용될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 학벌이나 학과가 중요하하기 보다 본인이 지원하는 일에 대한 학습력이 중요하다.

다만 영어영문과를 나오게 되면 영어와 한국어 혹은 언어학을 필요로 하는 곳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AI가 나오면서 AI언어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는데 그쪽으로도 지원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건 일에 대한 학습력과 나만의 강점을 가지는 것이다.

[추가질문]

-상황에 따라 항목에 적용하기

7) 꼬부기와 쇼비의 집사이며, My Cats Diary Channel을 운영하는 Youtuber(인터넷 1인방송인)이다.

[기본질문]

Hello
 I'm Judy, a university stud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better understand work environment in the USA.
 Strictly confidential and will not be sold, reused, rented, loaned or otherwise
 disclosed.
 Thank you!

*: optional inquiry

1. 이름:

2. 나이

- ① 10s ② 20s ③ 30s ● 40s ⑤ 50s ⑥ 60s ⑦ 70s ⑧ +70s

3. 학력

- ① Under Middle School ② High School ③ College ● University ⑤ +graduate school ()

3-1) In case you chose ④ or ⑤ what is/was your major?

: 심리학

[Personal]

1. 현재 직업/직책이 무엇입니까?

: Airbnb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Community Organization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부서는 Airbnb에서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역사람이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도움,
 적용되는 법과 정책 등을 Host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democracy campaign을 하다가 들어오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부서에 있는 몇몇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왔다.

3.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그냥 채용할 때 지원서 내서 면접보고 합격해서 들어왔다.

4. 이 직업을 위해 내가 한 일들

우리는 입사하면 반드시 심리관련 트레이닝 교육을 받는다.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이 있으면 더 좋고
 하지만 내가 여기 입사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자격증이나 활동은 없다.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지만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을 선호하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함.

[working place]

1. Are you satisfied with your work environment?

완전 만족함

1-1) why?

뭐 일단 회사 운영방향이 멋지다고 생각해서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행 다니는 것과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점도 크게 한몫했고. 복지로 제공되는 식사가 최고 인 듯.

2. How are mistakes handled?

3. What do you think about working with a foreigner/ foreigners?

(personal experience)

우리 업무도 일종에 다문화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형태라서 들어온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일을 기획해서 진행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좋다.

5. How difficult is your job?

각각의 직원마다 본인에게 매 분기별로 업무가 주어진다. 물론 이 업무를 배정할 때 그 사람의 능력치를 고려해서 할당을 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질 만큼은 아니다. 뭐 어떤 일이든 최소 한번쯤은 힘든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

그래서 직책은 같아도 하는 일에 따라서 월급이 다를 수 있다.

6. How do you find working with your boss or colleagues?

우리는 팀을 조직하고 그 팀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간다.

7. 회사나 근무환경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여기 직급체계는 Level12까지 있고, 상시 채용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직급은 Level 1~5까지 이다. 여기 회사 특성상 각 테마의 중요 문화를 디자인으로, 디자인팀이 공유지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하여 회사 방마다 인테리어가 되어있다. 또한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각 주제별로 인테리어 되어있는데, (제가 본 주제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입니다.) 이는 회사를 놀이로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들어갔다.

초창기에 로고는 굉장히 단순 했지만 현재는 코카콜라 로고 디자이너가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회사에 스마트 전등 등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CSR프로그램이 많다. 예를 들어 Open Home이라던가, 봉사한 시간을 시간당 20\$로 계산해서 사회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다.

번개회의실에서 주어진 업무 이외에 본인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회의실을 통해서 사람들과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진행 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근무하다가 쉴 수 있도록 Common Studio 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건강해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방침에 따라 건강을 고려한 식단과, 유기농 식자재로 요리하는 에 사내식당이 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9시와 10시중 알아서 출근하면 되고, 어떤 일이든 주말에는 무조건 회사 건물 자체가 문을 닫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웃음)

8. What is the requirement for English proficiency?

의사소통이 필수로 요구된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고.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전공 관련 질문]

1. 이 직업/직책과 영어·영문학이 적용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들은 답변에 대해 재구성 함)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창의적인 업무를 많이 해왔고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일에서도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된다. 문학을 한다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아서 조직운동을 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문학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을 것 같다.

[기본 인적사항]

1. 이름:

2. 나이(대략적인 범위)

- ① 10대 ② 20대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70대 ⑧ +70대

3. 최종 학력

-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전문대학교 ●대학교 ⑤대학원(석사/박사)
+전공 (간호학)

[개인]

1. 어릴 때 꿈- 선생님

2. 크면서(중·고등)학교 때 꿈- 뮤지션

3. 직업: 간호사/부서-내과 준중환자실

3-1) 직업을 택하게 된 이유

: 미국에 이민와서 전문직을 찾다가 주변인들의 권유와 사무직은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되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간호사가 적성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한 일들

간호대학을 다닐 때 간호조무사로 시간제근무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입간호사로 들어갔을 때,
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격증은 병원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License, BLS이외에
는 없습니다.

5. 회사에 들어올 때 에피소드, 경로, 방식

- 이력서 작성, 면접방식

이력서는 학력, 경력, 자격증, 그리고 프로페셔널 액티비티에 관한 걸 쓰고, 절대 생년월일을
쓰거나, 증명사진을 요구하지 않아요. 면접방식은 패널 인터뷰이고 전문지식을 물어보기보다는
behavioral questions를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Tell me about a conflict within your
healthcare team. What was the conflict and how did you handle it? 등등 일을 하면서 겪었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 한국과 문화 비교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면접을 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미국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신입간호사를 뽑을 때는 정기채용을 하는 편이고 경력 있는 간호사는 수시채용이에요.
한국처럼 2차, 3차 면접은 거의 없어요.

6. 외국에서 생활은 어떤지?

- 단순히 좋고 나쁨이 아닌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

한국에서 사는 것 보다 심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것 같고 좀 덜 치여 산다고 해야 하나?

한국처럼 명예퇴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본인이 전문직을 갖고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같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너무 느려서 한국에서 살다가 오면 처음에는 너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이체 같은 경우도 2-3일이 걸리고 (한국은 바로바로 되잖아요)
Job을 구할 때도 이력서 넣고 1-2달 뒤에 인터뷰하자는 연락이 와요.

의료보험은 대부분 회사,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해주는데 본인이 한 달에 얼마씩 또 내야해요.
저소득층, 노인들은 정부에서 해주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문제라기보다는 보험이 있어도 의료비 자체가 너무 비싸고 모든 진행이 느려요.

8. 회사에 들어오기 전후로 회사에 대한 이미지

그 전에 일했던 대학병원들보다 모든 것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 생각보다 되게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아무래도 병원 건물이 오래 되서 그런듯합니다.

9. 들어와서의 업무는 어떠한지?

- 업무의 강도(개인마다 편차가 있으니 주의)

임상간호사 자체로 일하는 것이 일의 강도가 좀 센 편이죠. 너무 바쁠 때는 12시간동안 정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가면서 일할 때도 있어요. 임상간호사로 2년 정도 일하고 나니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연휴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서 남들 쉴 때 같이 못 쉬는 단점이 있죠. 수간호사로 일할 때는 몸은 좀 더 편한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쉬프트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잘못처리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여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간호사들 대부분 성격이 강한사람들이 많거든요.

10. 실수했던 경우

- 개인의 실수 처리방법/ 회사의 실수 처리 방법

개인이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아니면 뭔가 시스템적인 오류를 발견했을 때, 저희도 safe report를 하고 매니저들한테도 알려야합니다. Medication errors 같은 경우 (모든 경우는 아닌데 환자의 safety issue랑 관련이 되어있거나 진정제를 잘못 놔주었다던 그런 경우)에는 매니저들이랑 미팅을 가져요. 이 미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잡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직장/직업]

1. (한국처럼: 인터뷰 때 설명해줌) 직무교육은 하는가요?

직무 교육합니다. 병원 오리엔테이션 1-2일 가야하고, 온라인 클래스(대부분 병원 policy, falls, insulin, HIPAA등등 여러 개) 들어야하는 것도 있고 그걸 패스하려면 시험도 봐야하고, EKG 테스트도 봐야합니다. (이건 어느 병동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오리엔테이션 쉬프트로 2주에서 많게는 6-8주정도 주고 그 병동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야근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미국병원에서 초과근무 하는 것은 1초가 넘어가도 돈을 받기 때문에 불만은 없어요.

- 최소/최대의 희망사항

'태움문화⁸⁾'는 없는데 "Nurses eat their you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시니어간호사들이 좀 텃세를 부리거나 새로운 간호사가 따돌림을 당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어디서 일하느냐 그 병동의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전 아직까지 이런 경우를 당한 적도 없고 주변에서 당한 경우도 본 적은 없어요.

인증평가⁹⁾ 있습니다. Joint commission이라고 1년에 한번정도 병원을 감사하러 나오는 기관이 있고 간호 같은 경우 magnet status를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죠. 안전사고단계, 낙상안내문, 응급의료체계 모두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다 교육받아요.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 있어요.

간호조무사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아무래도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 나중에 경력 쌓이고 일한지 오래되면 게을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매니저한테 알려야하고 매니저랑 미팅을 갖게 되지요.

PA는 한국말로 물리치료사인데 환자의 mobility를 측정하죠.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평소보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혼자 멀쩡히 걸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PA들이 와서 이 환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측정하고 같이 걷기도 하면서 이 환자가 퇴원할 때 집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요양 병원 같은 곳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개인 요양사가 필요한지, 휠체어, 지팡이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통역사가 있는데 낮에는 직접 환자를 도와주러 올 때도 있고, 밤에는 전화로 통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부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부르고 환자 옆에 영어와 모국어 둘 다 하실 수 있는 가족 분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도와주죠. 간호사분들 중에 통역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 분들이 오시면 통역을 도와드릴 때가 있습니다.

3.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개인적임을 밝힘)

- 여기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혹은 선망하는 직종인가요?

간호사라는 직종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망한 직종중 하나로 꼽히고 안정적인 것도 있고 수입도 괜찮은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8)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말함

9)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일반적인 경우로 물어볼 것)/내가 바라보는 간호사와 남이 바라보는 간호사
미국에서 간호사라고 하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선생님 같은 그런 직종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다른 간호사나 간호학생들을 보면
힘든 일을 하는 직업을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보람 있는 직업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공분야]

1. 전공이 영어영문인데 본인의 직업에서 영어영문이 적용될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환자 분들 중에 책 읽는 것 좋아하시고, 그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과 small talk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간호사 이외에 직종을 하신다면, 언어치료 분야도 괜찮습니다.

1. 근무 환경은 만족 하시나요?

예, 아주 만족합니다.

1-1) why?

: 여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함께 일한지 기본 15년 이상 되었다.

그렇다보니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소통이 잘 된다.

잠시 호텔을 자랑하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지만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부대시설 중에 극장(2층)이 있어 연극을 즐길 수 있다. 또 3층에는 비영리단체 ELKS Club이 들어와 있다. 이 단체는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회원이 되면 우리 호텔에 회원전용 시설을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1층에 있는 식당은 정말 맛있는데 어느 정도나면, 내가 근무해서가 아니라 여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적극 추천을 할 만큼 맛있다.

2. 실수한 경우/업무 방식

: 보통의 경우에는 실수는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실수 했다고 해서 매니저나 사수가 혼을 내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방식대로 처리하면 대부분 수습이 된다.

다만 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면 된다.

업무방식은 들어오는 일은 그때 모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말 사안이 커서 결정을 당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일지에 기록을 해서 공유를 한다.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좋다! 여기 여행을 오는 사람도 낯선 사람들인데, 같은 시선에서 바라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본인이 궁금했던 점은 여행객 역시도 궁금해 할 테니까. 다만 고객 중에 인종차별이 종종 있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

5. 업무 강도는 어떠신가요?

: 나쁘지 않다. 어떤 일이든 좋은 시기 힘든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종종 문제가 생겨서 일이 꼬이긴

해도 평상시에는 무난하다. 하지만 진상고객을 만나면 조금 힘들다(웃음) 그때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잠깐 든다.

6. 직장 내 사람관계는 어떤가요?

: 다른 회사(호텔)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여기는 근속년수가 기본 15년 이상 된다. 그렇다 보니 서로 눈빛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대화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8. 영어(언어)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 잘하면 잘 할수록 좋다. 하지만 꼭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에서 오기에 영어권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난감할 지도 모른다. 고로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영어를 잘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 역시도 영어, 스페인어는 기본으로 하고 그 외의 언어는 인사말 정도는 알아두는 편이다.

[전공관련]

1. 영어영문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영어는 공용어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으로 기초가 되어있는 점. 그리고 언어를 배우다 보니 영어가 아니더라도 의사소통의 원리를 빨리 이해 할 것 같다. 실상 영어권 국가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은데 그 모든 언어를 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통사론이나 의미론을 배우면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아닐까 싶다.

[기본 인적사항]

1. 이름:

2. 나이(대략적인 범위)

- ① 10대 ② 20대 ●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⑧ +70대

3. 최종 학력

-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교 ● 대학교 ⑤ 대학원(석사/박사)
+전공 (정치·외교학 및 국제관계학)

[개인]

1. 어릴 때 꿈:

: 어린 시절 어느 날 TV를 보는데 해외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프로그램을 보고 당시 막연한 생각으로 다음에 커서 해외에 나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사실 시골에서 자라서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기 어려웠기에 무언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많이 없다. 아니면 선생님?

2. 크면서(중·고등)학교 때 꿈

: 오히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꿈이 없었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학생이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전공을 정할 때, 해외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에 정치외교를 택하게 되었다.
외교관을 하면 해외를 다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3. 직업

: Habitat 해외협력부(前)/ Habitat 기업개발팀(現)

3-1) 직업을 택하게 된 이유

: 앞서 언급했듯이 외교관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실·환경적으로 외무고시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해외에서 일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Habitat' 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되었다.

4.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한 일들

: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한 일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경력직으로 들어왔으니 일부 외부 경력정도?

5. 회사에 들어올 때 에피소드, 경로, 방식

요즘은 입사할 때, 영어성적(TOEIC)을 기본으로 본다. 해외협력이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이기에 실무영어도 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부서별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재무부라면 회계자격증이나 건축부면 건축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부경력이 필수는 아니다. 이건 능력과 별개로 종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INGO¹⁰⁾라서 특정종교인이면 더욱 이해도가 높을 듯. 그렇다고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음.

10)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 간 국제기구)의 약자이며,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의 국제 협력으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6.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강·약점?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그것을 잘 소통하고 융화하는 점과 건축 현장에 있다 보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 마다 깊은 통찰력으로 빠른 판단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웃음)
단점은 좋게 말하면 남의 의견을 거의 수용하는 편인데 나쁘게 말하면 적극성이나 추진력이 낮다는 점

7. 외국에서 생활은 어떤지?

: 외국에서 살아 본 적은 없어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가끔 출장가거나 협력 업무를 할 때, 차이를 많이 느낀다. 예를 들면, 서류 처리속도가 있다. 서류 처리를 하려면 빨라도 2-3일은 걸린다. 그리고 시차의 차이도 있어서 시간을 잘 보고 메일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각 나라별로 포인트가 달라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맞춰가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8. 회사에 들어오기 전후로 회사에 대한 이미지

: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몰랐다. 당시에는 집을 짓는 국제시민단체이다 등등?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국제단체라서 서구 직장문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9. 들어와서의 업무는 어떠한지?

: 강도가 생각보다 셸다. 특히 해외협력부에 4년을 있었는데 1년에 출장을 6-8회 갔는데 상주일수가 평균 80일 ~ 100일정도 되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하고, 문화 차이나 시차로 인해서 업무 처리가 진도가 안 나가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는 '해피무브,Happy Move¹¹⁾'라는 프로그램에서, 중국을 갔었을 때 (당시 2016년도 17기 중국지역팀), 더워서 현장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많았고, '길거리 핸드폰 공갈단'처럼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생기는 일 등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해야할 업무가 배가 아닌 제곱으로 가중된다. 또한 심적 부담감도 제공이 된다.

10. 실수했던 경우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궁금함)

: 궁금했던 부분에 실수는 아니지만, 예전에 아프리카에 모기업에서 후원하여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프로젝트를 후원기업과 현지사람들과 잘 조율하고 협력해서 마무리를 지었었다. 그리고 1년 후에 기업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후기가 필요하니 현황을 알려달라고 해서 현지에 연락을 했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았다. 급한 경우는 Skype(인터넷에서 음성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이용하는데 답변이 해당 지역이 우기라서 갈 수 없다 우기가 끝나면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냥 급한 대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SNS로 보내달라고 하니 현지담당자가 우리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그 순간 아차 싶었다. 그래서 기업에 상황을 설명하고 우기가 끝난 후에 보냈던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조율이 잘 안될 때, 해피무브 17기 중국지역팀을 예로 들면, 매일 밤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하는 Feed Back 회의 같은 방식이 있다. 하지만 서로 의견 포인트가 많이 달라서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웃음). 이와 달리 만약 절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책임 질 사람 의견을 일단 선순위로 수용하는 편이다. 가장 중요한건 서로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11)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청년봉사단이 해외파견하여 넓은 세계를 배우고 세상을 움직이는 국제지도자로서의 성장을 꿈꾸는 의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진행하는 본인은 2016년도 17기 중국지역팀에 자원봉사자로 팀장님과 함께 파견 다녀왔음.

[직장/직업]

1. (한국처럼: 인터뷰 때 설명해줌) 직무교육은 하는가요?

: 입사하고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평상시에는 따로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건 없다.
외부교육이 있는 경우에 추천을 해주기도 한다.

2. 야근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 Habitat는 전 세계(이슬람국가 제외)에 각 지회가 있다. 국제단체라 대부분 사람들이 서구 직장 문화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한국지회는 한국 문화를 따르고 있으며, 각 나라별 지회도 그 나라 직장 문화를 따른다.

운영체제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해야 해서 아무래도 월급이 타 직업에 비해 많지 않다. 반차나 휴무 경우에는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사용해도 상관없다.
매우 자유롭다.

직급은 간사 → 대리 → 매니저 → 팀장 → 본부장 → 대표님 순이다.

3.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개인적임을 밝힘)

: 외부의 시선은 잘 모르겠다. 다만 나의 시선은 희생정신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이유는 앞서 얘기 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보면 될듯함

[전공분야]

1. 전공이 영어영문인데 본인의 직업에서 영어영문이 적용될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 아무래도 영어·영문이다 보니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외부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문화권을 받아 드리는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있으니 그런 부분? 또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는 해외협력이 주요 사업 중에 하나 이다보니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해서 영어·영문과니 실무영어는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부분? 등이 적용될 듯하다.

4. 자기평가

1) 기획 의도에 근거한 평가

: 직업군의 다양성과 해외에 취업 할 국가에 대한 문화권 체험 기획
 기획의도에 맞게 다양한 직군에 담당자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근무지 탐방을
 하여 궁금했던 부분의 정보를 얻고 현재 각 직군별로 추구하는 방향을 확인함
 문화권 체험은 12)미국(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에서 시민 스스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문화권을 체험함. 이 사실을 근거로 처음 의도했던 목적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2) 도전학기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 일정 진행 관련

- 처음에 기획 당시 2학기 재학중이어서 시작할 때 기획 구성이 체계적이지는 않았으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인터뷰 문의 연락을 보내어 다양한 직군의 인터뷰 약속을 받음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획 했던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수행하려고 했던 일정은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변경해서라도 진행했음. 또 도전학기 일정에 잘 맞추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음.

▶ 인터뷰 진행 및 근무지 탐방

- 직군에 대한 국내에서 알기 어려운 정보를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어 보기
- 실무자가 바라보는 나의 직업과 직장
- 영어영문학과 학생이 취업할 때 가지는 이점에 관해서 얘기 나누어보기
- 문화권별로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등의 기획의도에 맞는 내용을 담은 공통 질문지를 만들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으므로 잘 수행한 것으로 판단함
 일부 영어로 진행했지만 번역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전부 번역본으로 제출함

▶ 문화탐방을 통해 실제 문화권 체험해보기

체험	방문
SF Free Tour	: San Francisco Science Academy : Fishermans' Wharf
Meet up Program	: Shakespeare Garden 등등 외 다수 방문

: 미국 샌프란시스코 관광청에서 주관하는 역사투어나 Meet up이라는 대표적인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 문화·유적지 방문을 통해서 생활 및 각종 문화를 직·간접 체험하였으며 모든 부분에 대해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대표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 부분 경험했다고 판단함

12) 이번 도전학기에서 미국이라는 지역은 샌프란시스코로 범위를 한정하되 경우에 따라 타 지역도 포함하며 이 경우는 별도로 표시함

5. 최종 결과물

결과보고서: 사람책

◆ 사람책이란?



사람책	사람책프로그램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독자가 '사람책' 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통해 삶의 지혜와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 사람책은 누가 하는가?

-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독자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사람
-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청자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전하고 싶으신 사람
- 전문적 지식 및 역량을 나누고 싶은 사람
- 본인이 할 얘기가 있는 모든 사람

◆ 사람책 - 독자 활동으로 얻어지는 것은?

- 사람책은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 및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각자의 다양한 꿈을 사람책을 통해 청자가 경험하고 구체화할 수 있음.
-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종이책에서 경험 할 수 없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줄 수 있음.
- 사회적인 성공의 기준을 벗어나 기준을 개인에 맞추어, 각 개인의 삶을 존중하게 됨.

◆ 사람책에게 필요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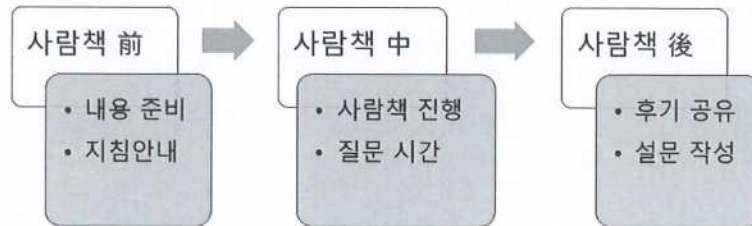
- 지식역량
 - 주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 신뢰할 만한 정보
 - 경험을 사회현상과 연결 가능
- 태도역량
 - 공감은 하되 동요하지 않음
 - 안정적이고 열린 자세
 - 신뢰감 있고 진지하게 준비하고 참여
- 기술역량
 -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 대화의 시간 조절 가능
 - 이해하기 쉽게 전달 가능



◆ 사람책 진행방법

- 운영 장소 - 사람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 운영 시간 - 사람책 내용에 따라 자율적 진행 (평균 40분 ~ 75분 진행함)
- 운영 방법 - 사람책이 독자 (최대) 3 ~ 5명에게 얘기를 하고,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활동

• 프로그램 진행 방법(도식화)



◆ 사람책 진행 지침

1. 해당주제에 맞게 40분~75분 동안 본인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2. 재능, 경험, 지식, 지혜를 주어진 시간 동안 대화 형태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강의, 상담, 지식검색이 아님)
3.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마음을 터놓고 대화합니다.
4. 토론, 논쟁은 금지사항입니다.
5. 정치적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피력, 정당 홍보, 종교 선교, 영업적 발언이나 관련 행위는 금지됩니다.
7. 질문이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금지됩니다.
8. 독자가 사람책이 제시한 방향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교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나의 사람책 진행계획서

사람도서관은
자신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려주는 '사람책' 과
'사람책' 을 대를해 읽는 '구독자' 가 존재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처럼, 사람책을 빌려서
최대 3~5명의 구독자가 함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과보고서 형식
: '사람책' (취업 견문에 대한 이야기)

- 목차

- 1.공무원 준비 하시려고요? 왜요?
- 2.혹시 이런 직업은 아세요?
- 3.해외취업 관심 있으신가요?

(부록)영어영문학과 생애 처음 미국방문기

영어영문학과 기대효과

1. 개인

- 선수과목: '실용영어(1),(2)'을 바탕으로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통해 실제 문화를 탐방 및 체험.
- 후수과목: 탐방을 통해 영어·영문학과 바탕으로 해외 취업진로를 설정 후, '취업 프레젠테이션'을 수강해서 실제 진로에서 희망하는 스킬을 갖추어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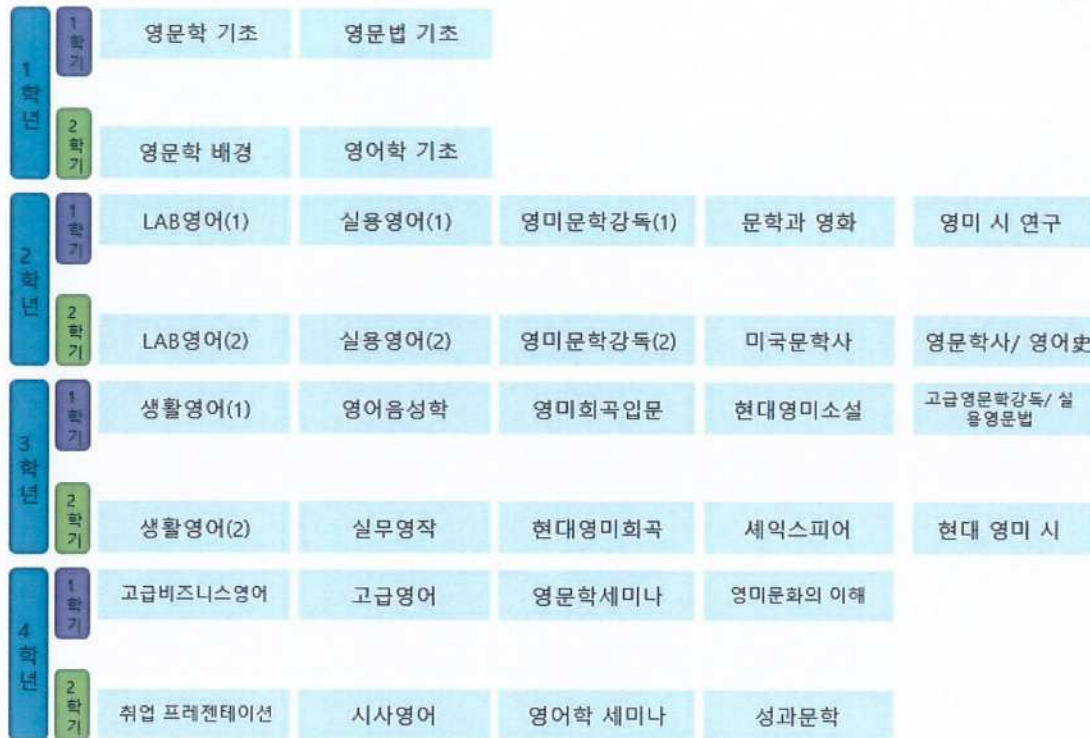
2. 학부 학생 및 교수님

위의 선수과목과 후수과목 외에도 관련 수업 및 학과 관련 진로설계 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을 사람책을 통해서 영어영문학과 학생 및 교수님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전공을 살려 해외 취업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교수님들은 진로 상담 때 최근정보로 제시와 수업 개설시 새로운 방향으로 개설을 고려할 수 있음

*기획서 내용 일부 발췌

전공 관련 산출 근거:

<p>• 교육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미문화의 합리적 수용능력을 갖춘 선진적 지식인 육성 - 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탁월한 영어구사 인력 배출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영어영문학 전문 인력 양성 	
<p>• 교육 과정</p>	
<p><1-1> 교과목 이수 체계도 <1-2표> 교과과정 교과목 : 하단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 과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문학 기초 2. 영어학 기초 3. 실용영어 <p style="text-align: center;">앞서 인터뷰에서 언급한 과목 중 일부 과목</p>



<1-1그림> 교과목 이수 체계도

학년	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구분	과목명	학점
1	1	전공	영문법기초	3	3	1	전공	생활영어(1)	2
			영문학기초	3				실용영문법	3
영어학기초	3		고급영문학강독	3					
영문학배경	3		현대영미소설	3					
실용영어(1)	3		영어음성학	3					
LAB영어(1)	2		영미희곡입문	3					
영어사	3		19C영미소설	3					
문학과영화	3		실무영작	3					
영미시연구	3		생활영어(2)	2					
영미문학강독(1)	3		현대영미희곡	3					
2	1	전공	영문법기초	3	4	2	전공	현대영미시	3
			영문학배경	3				현대영어연습	3
			실용영어(1)	3				현대영어연습	3
			LAB영어(1)	2				현지영어듣기	3
			영어사	3				셰익스피어	3
			문학과영화	3				현지영어작문	3
			영미시연구	3				고급영어	3
			영미문학강독(1)	3				고급비즈니스영어	2
실용영어(2)	3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3					
현지영어스피치	3		영국문화의이해	3					
영미문학강독(2)	3	성과문학	3						
미국문학사	3	영어학세미나	3						
영문학사	3	취업프레젠테이션	2						
LAB영어(2)	2	미국문화의이해	3						
					4	1		시사영어	3
					4	2			

<1-2표> 교과과정 교과목

상항일기: 하기실음 관두등가

河 己 失音 官 頭 登 可

♠ 제목: 상항일기: 하기실음 관두등가

河 己 失音 官 頭 登 可

♠ 서문

간단한 약력/

- 대구대학교 영어영문과
 - 영어자격증 없음, 1학년 때 마치고 취업 잠깐 했다가 복학함
- 도전학기 배경/
- 왜 이 전공을 택하게 되었는가?
 - 도전학기를 왜 하게 되었는가?

♠ 목차

1. 공무원 준비 하시려고요? 왜요?

: 취업을 하려는 이유

2. 혹시 이런 직업은 아세요?

공무원 마을, 기업마을, 의료마을, 서비스 마을, NGO마을 각 직군에 대해서 있는 직업 혹은 경험담 이야기하기

3. 해외취업 관심 있으신가요?

공무원 마을, 기업마을, 의료마을, 서비스 마을, NGO마을 각 직군에 대해서 있는 직업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터뷰 및 탐방 경험을 얘기하기

point: 직군, 취업경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운영방식

(부록)영어영문학도 생애 처음 미국방문기

문화체험:

- Meet Up
 - 각 문화 유적지 방문기
 - Good will/ Thrift shop
-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

참고자료:

<https://sfgov.org/cityhall/contact-us/> 샌프란시스코 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habitat.or.kr/> Habitat 공식 홈페이지

www.ucsfhealth.org/ UCSF Medical Center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irbnb.co.kr/> Airbnb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lassdoor.com/> 샌프란시스코 기업(직장)리뷰 홈페이지

+그 외 기타유인물

◆ 나의 사람책 진행 후기

참가자	후기
(지역주민)	<p>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고 말했듯이 들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 한 사람씩 각 개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신은 예상 외로 놀라운 이야기였다. 내용 중에 직장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 가장 인상이 깊게 남았다.</p>
(재학생)	<p>어릴 때 미국에 대한 동경이 다녀오게 했던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꿈으로 남기는 동경을 직접 실천했다는 점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녀왔던 곳(직장)이 앞으로의 청사진이 되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교수님)	<p>출국 전 준비과정에서 많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준비한 계획한 다 수행하고 무사히 귀국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 땅에서 실전영어 경험도 해보고 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p>